

참관일

학교 학년 이름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품전

MASTERPIECES FROM
EWHA WOMANS UNIVERSITY MUSEUM

2016.03.02 – 2016.12.31

* 이번 소장품전은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된 다양한 문화재를
<그림과 글씨><근현대미술><도자공예><금속공예>
라는 4 개의 소주제로 구성하였습니다.

전시활동지

어린이용
해설지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은

대학의 문화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1935년 4월 6일 이화여대 본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 때에는 부산에 마련된 임시 캠퍼스인 필승각에서 박물관을 열어 문화재를 보호했습니다. 1953년 서울로 돌아와 지금의 본관에 다시 문화재를 전시하였고, 교수들과 사회 유지들의 수집품을 기증받아 소장품을 더욱 풍부히 하였습니다. 1989년 현재의 박물관을 마련하여 고대부터 현대까지 전 시대를 아우르는 유물 25,000여 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매년 다양한 주제의 전시과 교육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1-1

<그림과 글씨>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신 장군님 묘를 지키는 원숭이에요
오늘 저와 함께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을 탐험해볼까요?

- 저는 오늘 12지 친구들을 대표해서 나왔어요.
내 12지 친구들 모두 알고 있나요? 적어볼까요?

쥐.소.호.양.이.토.기.용.뱀.말.양.원.숭.이.닭.개.돼.지

- 제가 대표로 나온 이유를 맞춰볼까요?
힌트! 2016~

병신년 원숭이띠의 해이기 때문입니다



김유신묘
원숭이 탁본

효제문자도



옛날 선비들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지켜야 할 것을 글씨로 쓰고 그 안에 그림을 넣어 방에 두고 매일매일 보며 자신을 반성했어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아하!**
지켜야 할 것을 적어보아요.



孝 孝 孝 - 부모에게 효도하기!

悌 公 共 賀 제 - 형제와 사이 좋게!

忠 忠 成 충 - 나라에 충성하기!

信 民 을 신 - 친구에게 믿음직스럽게!

禮 예 절 예 - 예의 지키기!

義 읊 을 읍 - 올바른 것을 향해!

廉 청 렴 할 염 - 욕심부리지 않기!

恥 부끄러울 치 - 부끄러움을 알기!

오른쪽 글씨는
禮입니다
박물관 예절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보아요

박물관에서 지켜야 할 것.

- 뛰지 않습니다.
- 유리를 손으로 만지지 않습니다.
- 작은 소리로 말합니다
- 카메라 촬영 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그림을 안에 자유롭게 넣으면 됩니다.



기사계첩
보물 제 638호
1720년 제작

옛날에는 70세가 넘은 신하들의 모임(기로소)이 있었습니다. 왕실에서는 그들을 존경하고 우대하여 상을 주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숙종도 60세가 넘은 것을 기념하여 이 모임에 들어갔는데, 그 날을 기념하여 그린 그림이 기사계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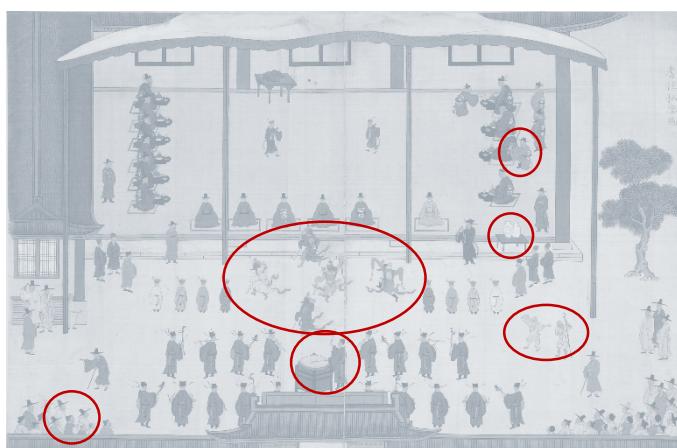


<어첩봉안도>
기로소에 보관하던 왕의
어첩을 봉안하는 모습

<승정전진하도>
경희궁 정전인 승정전에서
축하글을 올리는 모습

<경현당석연도>
숙종이 경희궁 경현당에서
베푸 잔치의 모습

<봉배귀사도>
임금이 내린 은잔을 받들
고 기로소로 가는 장면



<기사사연도> 기로소에서 가진 잔치 모습

이번 잔치의 하이라이트!
기로소 잔치 모습 숨은 그림 찾아볼까요?

탈춤 추는 사람들 / 구경하는 어린이 /

나이 많은 관리의 등을 바쳐주는 하인 /

복치는 사람 / 왕이 내린 술 /



--	--	--	--

<박물관에 온 나의 얼굴>

<전시를 관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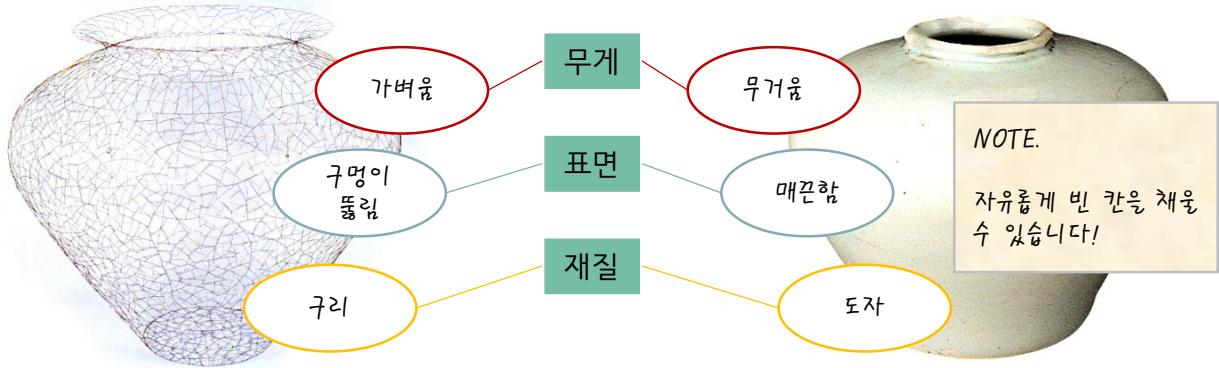
<좋아하는 전시물>

<활동지를 하는 모습>

1-2 <근현대미술>



정광호의 <항아리>를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항아리와 비교해보아요.



정광호 작가는 왜 이런 항아리를 만들었을까요? 느낀점을 써보아요.

정광호는 조각이라는 형태가 가지는 거대함에 반하기 위하여 자신만의 '가벼운' 이미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생각을 한 번 들어봐 주시고 무거운 것을 가벼운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미술의 세계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세요~



김인승의 <무희>를 보아요. 김인승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서양화를 처음 그리신 분들 중 한 분이에요.



김인승 선생님은 훌륭한 화가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하셨나요?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따라 그립

왜 그랬을까요?

서양화가 우리나라에 들 어왔을 때 얼마나 낯설 었을까 이야기해보며 새로 운 것을 배울 때 따라그리 기의 유효성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세요~





고려시대의 대표 예술품! 청자입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청자.
자세히 보면 장식한 방법이 모두 달라요~

2-1 <도자공예>



알맞은 장식 방법에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아하!**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를 보고 아래 글을 참고하여 문제를 맞춰보아요

-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는 고려청자가 처음 만들어질 때의 항아리예요. 몇 년에 만들어졌나요?

993년. 이 시기에 도자기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전 세계에 우리나라와 중국 뿐입니다. 그리고 이 청자는 우리나라의 완전한 형태의 도자기 중에서 낸도가 써있는 것 중 가장 처음의 것입니다.

- 처음 청자가 만들어질 때 색은 어떤가요?

노란색이 많이 납니다. 아직 푸른색 유약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 왜 바닥에 글씨를 썼을까요?

평소 사용할 때 보이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중요한 물품이라 만든 사람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 바닥에는
淳化四年 癸巳 太廟 第一室 享器匠 崔吉會造 (순화 4년-993 계사년에 태묘 제1실에서 쓰는 의식용 항아리를 장인 최길회가 만들었다) 고 쓰여있어요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이 양평 상자포리에서 발굴한 한국식동검은 요령식동검의 특징도 가지고 있어 초기 한국식동검으로 유명합니다.

아래 사진을 보고 요령식동검과 한국식동검의 모양을 써보고, 상자포리 동검을 가운데 그려보아요.



전쟁기념관 소장

**요령식동검
(비파형동검. 중국식동검)**

시대 : 청동기시대

모양 : 자유롭게 쓰세요



2-2 <금속공예>



상자포리 동검은 요령식동검처럼 아래쪽이 둥글지만 한국식동검처럼 중앙에 마디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요령식동검에서 한국식동검으로 가는 중간 단계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양평 상자포리에 있는 고인돌 밑에서 다른 청동기들과 함께 출토되었습니다.



**한국식동검
(세형동검)**

시대 : 철기시대

모양 : 자유롭게 쓰세요



공예품은 도자기. 금속기 등 다양합니다.
공예품들은 재질은 서로 다르지만 모양도 비슷하고 무늬도 비슷해요.

아래를 보고, 비슷한 무늬끼리 연결해보세요!



NOTE.

공예품들은 기형과 문양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장식하는 기법도 유사합니다.

상감기법은 청자로 유명하지만 금속공예에서는 은실을 넣어 장식하는 은입사기법이 있습니다. 전시장 원쪽 패널을 참고하세요.

